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 자동차보험, 텔레메틱스를 활용한 틈새시장 개발

□ 영국의 대형 보험중개업체인 Proctagroup은 텔레메틱스*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보험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발표함.

- Proctagroup은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10대 층을 타깃으로 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함.
- Proctagroup은 차량 비운행 시간을 약정한 고객의 경우 담보하는 리스크와 보험금 지급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함.
- 낮은 보험료는 보험사에게 시장 경쟁력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차량 비운행 시간 약정 고객층을 위주로 하는 틈새시장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.
- 자동차 무선 네트워크시스템인 텔레메틱스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차량 비운행 여부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와 같은 보험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함.

* 텔레메틱스: telecommunication과 informatics(정보과학)의 합성어로서 차량 내에서 운전자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을 원격 진단하고, 교통·생활정보·긴급구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. 미국의 GM과 모토롤라의 합작회사인 On-Star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위성항법시스템(GPS) 위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포드-퀄컴, 벤츠-도이치텔레콤 등 자동차 메이커와 이동통신 전문업체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

□ Proctagroup은 동 자동차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텔레메틱스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고 시험 가동을 시작한 바 있음.

- Proctagroup은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 위치추적 장치 업체인 WebTech Wireless와 소프트웨어 및 콜센터 고객서비스 제공 업체인 Overview Mapping으로 하여금 시범적인 운영을 실시하였고,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함에 따라 최근 제휴를 체결함.

□ Proctagroup은 영국 보험시장이 매우 선진화되어 있고, 경쟁력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활용과 이에 기초한 경쟁력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- Proctagroup의 CEO는 가까운 시일 내에 텔레메틱스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상품이 북미 및 남미에서 뒤따라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함.

(Stockhouse 6/17)